

##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활용한 사진그래픽 연구

A Study on the Graphic of a Photograph Using Déformation Technique

주 저 자 : 최치권 (Choi, Chi Kwon)

서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cck@seoil.ac.kr

---

<https://doi.org/10.46248/kidsr.2020.4.158>

접수일자 2020. 11. 26. / 심사완료일자 2020. 12. 17. / 게재확정일자 2020. 12. 24.

본 논문은 2020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various artistic attempts have been continued for the thinking and the newly creative expression in artists who pursue aesthetic value of art. Objective recordability, which is the basic characteristic of a photograph, has been developed as a medium of public documentary. But with passing through many changes in art field, even a photograph has increased its scalability in diverse areas. Based on this extendability, the graphic of a photograph, which becomes the theme of this study, was recognized as a work of art beyond the medium of the basic record in a photograph. The history of painting sought for the art in realistic expression. In this way, the photograph, which secured the near-perfect realism, may require the direction of lowering realistic expression reversely in order to be acknowledged as a work of ar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rt technique of deformation aiming to express image in which a photograph awakens human unconsciousness and amplifies subjective meaning, and designated a photograph as a research medium in the creation of visual art works. It was confirmed how differently the deepening in record and expression available through using deformation technique can make a characteristic of a photograph be shown. Like this, the graphic image of a photograph, which is made on the basis of deformation technique, is expected to expand into the new image expression of the photograph art that awakens a human being's subjective unconsciousness, beyond the effect of objective record that the traditional documentary presents.

## Keyword

Déformation, Visual Graphic Arts, Documentary, Photography

---

## 요약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사유와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의 근본적 특성인 객관적 기록성이 공적 다큐멘터리의 매체로 발전시켜 왔지만 예술분야가 많은 변화를 거치며 사진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확장성을 높여왔다. 이런 확장성을 근거로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사진의 그래픽은 사진의 근본적인 기록의 매체를 넘어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회화의 역사가 사실적 표현의 예술을 추구했듯이 거의 완벽한 사실성을 확보한 사진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대로 사실적 표현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진이 인간의 무의식을 자각시키고 주관적 의미를 증폭시키는 이미지 표현을 위해 데포르마시옹의 미술기법 근거로 하였고 시각예술작품 창작에 사진을 연구 매체를 정했다. 데포르마시옹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기록과 표현의 심화가 사진의 특성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진 그래픽이미지는 전통적 다큐멘터리가 나타내는 객관적 기록의 효과를 넘어 인간의 주관적 무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사진 예술의 새로운 이미지 표현으로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데포르마시옹의 이해
- 2-2.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해와 변화

### 3. 미술과 사진 그래픽의 데포르마시옹 표현

## 4. 예술적 다큐멘터리 사진 그래픽을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활용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인류는 다양한 기술적 진보와 성취를 이루면서 문명(civilization)을 형성하였다. 문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문화(culture)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양식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활동의 산물이며 회화, 사진, 디자인,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의 정수를 보여 준다.<sup>1)</sup>

문화적 측면에서 예술은 미적 가치를 ‘형상’으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와 감상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사유와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sup>2)</sup>

사진은 인간의 시각이 기계적인 카메라의 시각으로 사물에 접근하게 한 기술적 매체이다. 인간의 지각과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고 쉽게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며, 개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추상 또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입증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기계에 의해 지각이 되어 하는 것이다.

카메라에 의한 사진은 그 근본적 본성상 객관성의 도구이다. 사진이 등장한 이후, 그 객관적 사실성 때문에 인간의 세계를 차갑고 비정한 그 무엇으로 경험하게 했다.

사진의 객관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관계한 것은 아니라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무의식적 관념영역조차도 객관적인 시각적 형태로 만들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작을 막연히 추측만 할 뿐이지 직접 확인하거나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카메라의 사진

1) Raymond Williams(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Ed.), NewYork: Oxford UP, pp.87-93.

2)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구성과 데포르마시옹,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4.

## 5. 결론

### 참고문헌

은 고속촬영이나 렌즈와 같은 기계의 눈을 통해 이들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발터 벤야민이 말했듯이, 정신분석이 인간의 총동적 무의식을 밝히는 분야라면, 카메라 기술은 사물의 "시각적 무의식(the optical unconsciousness)을 밝힌다고 했다. 사진에 의해서 인간이 시각적 무의식을 인식하자마자, 마치 정신분석에 의해 꿈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현실은 인간이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적으로 지각된 현실은 기괴하고 부조리해 보였으며 더 이상 인간이 상상했던 균형과 비례를 갖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카메라의 사진이 펼쳐놓은 사실로 표현된 현실은 기계가 주는 정밀한 대칭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뒤틀리고 일그러져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진이 보여준 시각적 무의식이 불균형적이고 뒤틀린 왜곡현실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다른 한편 인간이 대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사진에 찍힌 피사체는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본성 등 물리적(육체적) 외양을 넘어선 특유의 시간성이나 환상성 등을 무심코 드러낸다.

사진의 근본적 의미는 객관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화가처럼 대상을 주관적으로 미화하거나 기량 부족이나 기벽 탓에 대상을 왜곡할 위험이 없다는 뜻이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진은 세계와 모종의 직접적, 반영적 관계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이다. 여러 유럽에서의 ‘렌즈’의 뜻은 ‘앞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라틴어와 연결되어 있다. 렌즈의 속성에 불과한 ‘객관’이 역사적 진실, 특정 시공간의 진실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객관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진사를 근거로 볼 때 사진이 사회의 실상 내지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사진은 진실도 거짓도 있듯이 사진이 피사체의 유의미한 면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sup>3)</sup> 이런 객관

3) 발터 벤야민 저, 에스더 레슬리 역음, 김정아 옮김,

적 기록성이 그동안 사진을 공적 다큐멘터리의 매체로 발전시켜 왔지만 예술분야가 포스트 모더니즘적 표현방식을 거처며 새로운 시도와 트렌드가 나왔으며 사진도 예술 및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확장성을 높여왔다. 이런 확장성을 근거로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사진의 그래픽을 말함은 사진의 근본적인 기록의 매체를 넘어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회화의 역사가 사실적 표현의 예술을 추구했듯이 거의 완벽한 사실성을 확보한 사진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대로 사실적 표현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진 예술은 단순히 사건이나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며 사진가의 주관적인 중심사상과 창작동기인 모티프를 기반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성하여 표현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체'라고 할 수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진에서의 그래픽 메시지의 심화하는 표현을 위해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의 미술기법 근거로 하였다. 또한 시각예술작품 창작에 그래픽을 실행하기 위한 사진을 연구 매체를 정했다.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언어적 기록과 표현의 심화가 사진의 특성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전달력 있는 이미지가 새로운 사진 그래픽 창작에 효과적인 제작 원칙이 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사진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형태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표현이 추가됨에 따라 사진의 그래픽 형태는 다양해지거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의식적 시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사진의 그래픽적 창작에 데포르마시옹 기법 활용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창작의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 그래픽의 표현 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이론적 근거로 왜곡 등 적극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사진에 대해 논했다. 이런 표현은 사진의 최초의 목적인 기록의 매체를 넘어 예술적 감정의 맥락을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회화 이상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진의 그래픽이 가질 수 있는 공명(共鳴)이라는 이미지의 '아우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과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개념을 근거로 그것이

발터 벤야민 사진에 대하여, 위즈덤하우스, 2018, pp.36-37.

사실적 시간의 형태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그래픽을 넘어 발터 벤야민의 무의식을 시각적으로 지각시킬 수 있는 사진 그래픽 창작을 진행한다면 예술분야에서 사진 이미지가 중요한 그래픽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근거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 그래픽으로 창작하는데 필요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활용으로 사진의 새로운 창작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논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데포르마시옹의 이해

19세기까지의 회화 및 시각 예술은 실재하는 오브제의 사실적 재현을 지향하였고 그것의 표현을 통해 예술작품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진술의 발명 및 발전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진의 완벽한 사실적 재현능력이 보편화 되면서 회화를 포함해 전통적 시각예술에는 혼란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다양한 회화 스타일의 변화와 모던디자인의 시작을 가져오게 됐다.

시각예술의 역사를 지배한 모방론(mimesis theory)이 실재와의 유사성을 재현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면 20세기 이후 재현의 개념은 실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시각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재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조형 요소의 데포르마시옹을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데포르마시옹은 자연을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사물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변형시키는 미술 기법을 말한다. 미술사적으로 자연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아수파, 입체파,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등 미술사조의 유형이 전개되고 대립하는 모든 시기에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기법이 변화하였다.<sup>4)</sup>

데포르마시옹은 작품 오브제의 형태를 일부러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미술에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주관적 기준으로 왜곡을 더해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긍정적 느낌도 있지만 불쾌한 느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은 기호학에서의 표현과도 비슷하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이며 예술사적으로 많은

4) 윤영범, Op. cit., p.308.

작가들이 표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그림 1]은 원시시대의 데포르마시용으로 기원전 2만 5천년 경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은 그 시대의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여성의 젖가슴, 허리, 엉덩이 등이 매우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근대 이후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된 표현주의 사조에서 보이는 기괴한 느낌의 데포르마시용을 뭉크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가시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며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 느낌으로 감정적 개념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림 1] **左)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右)에드바드 뭉크, '절규', 1983<네이버 이미지 검색>**

데포르마시용이 회화와 시각예술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사실주의가 부정되면서부터이다. 이전의 미술이 원근법, 단축법, 프로포션(Proportion), 미술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 표현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근대 이후부터는 예술가의 인상과 조형의 자가 중시되면서 왜곡을 작가가 고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됐다.<sup>5)</sup> 이는 사진술의 발전과도 연관성이 높다. 이 기법은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게 형(形)이나 프로포션, 공간 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며 독창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자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표현을 한 변형의 방법에 개념을 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진에서 표현기법으로 사용할 데포르마시용이 사진을 의외의 시각언어로 창작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사진의 원형 그대로 촬영하는 객관적 기록의 개념 보다는 사진촬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 요인으로 그리는 것이

5) [https://blog.naver.com/open\\_gallery/221162366674](https://blog.naver.com/open_gallery/221162366674)

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 의미를 볼 수 있는 사진이미지는 언제나 표현을 전달의 수단으로 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이미지로 모방하는 사진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대상에 주관적, 직관적 인상이 가미되면 그것은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된다.

## 2-2.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해와 변화

다큐멘터리 사진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직후인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보적 사회개혁 의제를 다루고자 하는 사진을 의미했으나, '역사의 의미가 변하고,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성격이 변해 요즘은 그 범주가 확장되어 규정하기가 힘든 상태다. 그 안에서 어떤 이는 여전히 과학적, 거시적 시각으로 기록의 객관성을 추구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문학적, 미시적 시각으로 해석의 여지와 감성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사진의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면 다큐멘트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하며, 자료라는 것은 바로 사진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하나로 개념화 된 서사를 이루면서 그 서사를 통해 분명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야 한다.<sup>6)</sup>

## 3. 미술과 사진 그래픽의 데포르마시용 표현

[표 1] 미술회화 작품의 구조와 변형의 의미작용 사례  
(上)1908년 5월 3일, 프란시스코 교야, 1814, (中)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마네, 1867-1869, (下)한국에서의 학살, 파블로 피카소, 1951, 네이버 블로그 검색

형식	이미지	의미작용
사실의 사건 기록		사실의 이상적 표현 = 어떤 비극
사실의 사건 기록		사실의 인상적 표현 = 어떤 비극

6) 김석진, 삼선쓰레빠 블루스, 눈빛, 2015, pp.115-116.

사실의  
사건 기록



사실의 왜곡적 표현  
= 어떤 비극

[표 1]은 사실적 사건을 기록한 미술작품 사례로 본 작품의 형식과 변형에 따른 의미작용이다. 여기서는 사실적 사건에 대한 회화적 기록을 구분할 수 있다. 사실적 사건 기록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왜곡적 표현까지 비극을 상징하는 명장면이 된 회화의 이미지는 시대별로 다른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비슷하면서도 특성이 있는 작품이 창작됐다. 사실적 표현의 의미작용과 사실적 표현에 왜곡적 표현이 추가된 의미작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다른 방식인 작품으로 감정을 표출한다. 피카소의 사실에서 벗어난 왜곡이 심한 표현은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반항적일 수 있다. 다른 작가들은 역사적 기록에 대한 사실과 이전 작가들의 작품들에 영향을 받아 회화가 추구하는 사실적 표현을 주로 했다면,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은 작가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은 없지만, 전쟁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작품을 그렸고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적인 표현으로 작가의 비극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더 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림 2] 파블로 피카소, 게르니카(Guernica), 1937,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그림 2]의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란 중 1937년 프랑코 군을 지원하는 독일 비행기가 마을을 맹폭하여 2000여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그 부조리와 비극을 테마로 약 2개월의 단기간으로 대작 ‘게르니카’를 완성시켰다. 전쟁의 공포성과 운명의 장난 밑에 무력한 인간의 비참함이 투우에서의 빛과 어둠의 상극(相克劇)을 빌어 상징화되어 있다.<sup>7)</sup> 사실주의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7) <http://blog.naver.com/beetle55/100162052178>

내면세계를 환상적이고 세밀하게 환각적으로 그린다.

[그림 3, 4]는 벨기에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와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인접성과 유사성이 가능한 이미지의 차용과 합성을 통해 일상의 와-내면 사이의 경계를 은유의 조형적인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초현실주의 개념적 특성을 재현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경험과 현실을 초월하는 상상력의 시각화를 통해 본능과 내면의 욕구를 재현했으며 전통적인 표현의 영역을 창의적으로 확장하였다.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은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이미지 묘사와 정상적인 재현의 맥락을 이탈하는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의 다른 이미지도 보이는 착각에서 영감을 받아 왜곡된 창작기법으로 비현실적 이미지를 객관적·사실적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 3] 르네 마그리트, La femme du maçon, 1950,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그림 4] 살바도르 달리, 구운베이커리와 부드러운 자화상, 초현실주의 회화,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그림 5]의 포토몽타주 기법은 1920년대 베를린 다

다이스트와 러시아 구성주의에 의해 시도된 기법이다.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결합하여 설득력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카소나 브라크 등의 입체파 작가들의 콜라주는 순전히 화면의 미적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연히 발견'된 오브제를 붙이는 기법이었다면 다다이스트들의 포토몽타주는 아이러니와 풍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분히 화면의 조립과 이미지의 선택이 매우 '의도적'이다.

[그림 6]의 레이오그램은 포토그램, 리히트그래픽과 같은 것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감광 재료 위에 물체를 얹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명암을 이용한 추상 사진. 레이오그램은 파리에 있던 미국의 초현중의 자인 만레이가 1926년 <블룸>이라는 잡지 표지에 발표하면서 붙인 명칭이다.<sup>8)</sup>



[그림 5]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금화를 집어 삼키는 슈퍼맨 아돌프 히틀러, 포토몽타주(Photomontage)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그림 6] 만레이, 레이오그램(Rayogram), 1926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그림 7]은 실제 사진 촬영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의미와 이원적 의미를 얻어낼 수 있도록 포토몽타주와 레이오그램 기법의 구조적인 원리를 응용하여 사진 촬영 후 후보정에서 판화의 스텐실 방법을 응용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진 그래픽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비오는 날씨의 객관적 장소와 인물을 촬영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사진에서 차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의 합성에 의한 상관성으로 관계를 만들어 은유의 조형적인 데포르마시옹을 구현한 초현실적 사진의 이미지이다. 두 개의 보이는 상반된 사진 대상의 상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무의식적 자각에 의한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림 7] 포토몽타주와 레이오그램을 응용한 포토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사진 그래픽, 출처: 최치권, 2015

#### 4. 예술적 다큐멘터리 사진 그래픽을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활용

사진가는 예술적 사진성에서 완성 불가능한 것을 중시할 수 있으며 완성 불가능성의 미학에 따라 사진 작품을 구성할 수 있다. 사진가는 회귀 불가능성과 완성 불가능성의 양상을 통합하는 사진적 기획, 다시 말해 사진 네거티브의 생산과 사진의 실현, 정리, 문맥화, 작품화를 포함한 사진의 활용을 통합하는 사진적 기획을 가질 수 있다.<sup>9)</sup>

9) 프랑수아 솔라주 저, 신화민, 정재준 옮김, 사진미학, 눈빛, 2019, p.174.

8) <https://blog.naver.com/vntlp1229/220843334869>

연출 사진은 다큐멘터리의 시작부터 존재해왔다. 오늘날, 다큐멘터리 사진의 뉴스 편집실 밖에서의 연출은 단지 유행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연출에 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공개적인 지지와 반응이 있다.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서 연출은 현대 사진 내에서 역할이 인정되어, 자신만의 서술 언어를 창조하고 있다. 그 언어는 무엇보다도 다큐멘터리 충동에 의해 이끌린다. 미술 사학자 올리바 마리아 루비오는 “다큐멘터리의 경계에 관한 생각이 오늘날에는 많이 다르다. 사진은 새로운 서술기법을 창조하고 있고, 사람들은 좋은 사진을 만드는 기술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더 집중한다.”라고 말했다.<sup>10)</sup>

**[표 2] 데포르마시옹의 유형 <발체 :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구성과 데포르마시옹, 윤영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314.>**

유형	개념과 특성
확대성	인체를 변형하여 부피와 길이의 확대를 통한 형태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역동적이고 과장된 조형과 색채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대상의 균형과 질서에서 벗어나 확대되고 과장된 형태는 보는 이에게 시각적 자극을 통해 집중과 흥미를 유발시킨다.
유회성	유회성은 의도적으로 대상을 이질적인 요소와 대립시키거나 부조화한 형태로 표현하여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대상의 이미지를 모순되게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진다. 현대예술에서 의도적인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구현되는 유회성은 대상을 과장되고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긴장감을 해소시켜 웃음, 놀라움, 쾌감 등을 유발시킨다.
기괴성	기괴성이란 괴기한 것, 보조리한 것, 극돌 부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그로테스크(grotesque)’를 번역한 용어다.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나타나는 기괴함은 대상을 희극적이거나 괴이하고 부조화한 형태로 과장하여 묘사한다. 특히, 데포르마시옹의 기괴함은 정형화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신체와 왜곡과 변형을 통한 일탈의 불안 공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보는 이에게 섬뜩하고 두려운 감정을 유발시킨다.
가상성	가상성은 시각적 현상, 착시, 환영, 환각 등의 본질적인 모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허구 혹은 상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시각화한 것이다. 가상성은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부분을 재현적으로 나타내므로 신화, 동화, 꿈, 기괴, 초능력, 유령, 초현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시각예술에 있어서 가상성은 상상적이고 동화적으로 때로는 전이적이고 유회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유발시킨다.

10) 스투어트 프랭클린, 세계, 인간 그리고 다큐멘터리, 토러스북, 2017, p.176.

데포르마시옹은 변형·왜곡·기형 등을 의미한다. 자연적인 형태의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다.<sup>11)</sup> [표 2]의 데포르마시옹의 유형처럼 재현의 개념과 조형 요소의 특성으로 예술가의 주관적인 의도를 표현하는 조형적 시도를 할 수 있다.

**[표 3] 데포르마시옹 유형별 사진 사례<발체 : 최치권, 박경태>**

유형	사진 이미지
확대성	
유회성	
기괴성	
가상성	

[표 3]의 데포르마시옹의 유형별 사진사례는 사진 이미지의 각 유형별 분류의 특성에 따라 사진 촬영 피

11) 윤영범, Op. cit., p.313.

사체의 사실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사진가의 주관적인 시각 표현을 강조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새로운 경향의 사진의 시각적 표현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근거로 한 사진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사실적 균형과 질서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대중들을 환기시켜 시각적인 강렬함과 의외성을 유발하는 사진을 창작할 수 있다.

[표 4] 확대성 사진의 표현이미지

확대성 과 사 진 이 미지	사진 오브제	데포르마시옹
	1. 웃는 아이 표정	1. 가늘게 갈라진 눈 2. 왜곡된 얼굴 촬영
	형태 기록	감정 표현
	해맑게 웃는 얼굴	다른 감정을 숨긴 웃는 얼굴
	이미지의 효과	
	단순한 웃음이 아닌 슬픔, 분노 등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의 비웃음	

[표 5] 유희성 사진의 표현이미지

유희성 과 사 진 이 미지	사진 오브제	데포르마시옹
	1. 인물+풍경	1. 인물 조각상 2. 움직이는 포즈들을 촬영
	형태 기록	감정 표현
	특별한 동작이 있는 피사체	코믹적 네러티브를 만드는 두 인물 피사체간의 상관성
	이미지의 효과	
	대비 되지만 유사성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위트를 만들어냄	

[표 6] 기괴성 사진의 표현이미지

기괴성 과 사 진 이 미지	사진 오브제	데포르마시옹
	1. 벽 구조	1. 뿌려진 페인트 자국 2. 경험에 의한 발견과 촬영
	형태 기록	감정 표현
	벽에 뿌려진 페인트 자국	의외의 새로운 형태로 존재를 인식하면 감정이 깊어짐
	이미지의 효과	
	실재 존재하지 않고 보기 힘든 대상의 표상을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냄	

[표 7] 가상성 사진의 표현이미지

가상성 과 사 진 이 미지	사진 오브제	데포르마시옹
	1. 서울시내의 건물과 풍경	1. 비(rain)의 필터링 2. 일그러진 풍경을 촬영
	형태 기록	감정 표현
	항상 존재하는 사실	물과 유리가 만드는 의외성과 감정
	이미지의 효과	시각, 청각, 촉각 등 많은 감정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줌.

[표 8] 사진의 객관적 이미지와 데포르마시옹 표현 사례 <발췌 : 최치권, The Map of Korea, ILU, 2016>

사진 촬영 원본 피사체 촬영 이미지



사진 촬영 변형 피사체 촬영 이미지



사진 촬영 데포르마시옹과 후보정의 사진그래픽



[표 8]의 사진의 사실을 촬영한 이미지와 데포르마시옹의 변형에 의한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에 보이는 사실적 피사체가 사진에 반응하고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진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가 역시 본인이 피사체에 확대성의

왜곡으로 피사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사진가가 사진 촬영시 스스로 보고자 하는 태도에 따라 피사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력을 주고 새롭게 보이는 피사체의 이미지에 의해 사진을 보는 이미지도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기술과 촬영 환경의 활용도 필요하지만 특히 촬영자 피사체를 다르게 보고자 하는 데포르마시옹의 감정적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의 사진그래픽으로 완성된 사진은 데포르마시옹 기법으로 피사체의 원형인 꽃이 아닌 의외의 중의적 의미를 상징하는 시각언어로 보게 한다. 사진은 보는 이에게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 있게 피사체가 새로운 개념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의 피사체인 꽃을 그대로 촬영하는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사진촬영에서 활용할 수 있게 적절한 빛 그리고 피사체 왜곡은 천과 바람을 이용하고 화면 구성을 위한 렌즈 선택, 그리고 촬영할 피사체를 어떤 개념으로 볼지 생각하는 사진가의 마음으로 촬영과 후보정이 된 것이다.



[그림 8] 사진 이미지의 데포르마시옹과 촬영 및 표현의 요인에 의한 의미 변화 <발췌 : 최치권, The Map of Korea, ILU, 2016>

## 5. 결론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사유와 새롭게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진 그래픽 창작을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활용을 위해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개념과 특성을 구분하고 실제 사진유형별 사진시례를 근거로 응용할 수 있는 요인과 방법을 제시했다.

사진의 결정적 순간은 빛, 피사체, 렌즈의 눈, 사진

가의 마음이 일치할 때 온다고 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앞의 그것들을 사진 촬영에 활용하면 독창적인 사진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요인들이 사진의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활용하게 한다. 데포르마시옹 기법은 고대의 회화부터 시작했지만 회화는 그것의 방식대로 현대의 사진은 카메라와 관련된 방식대로 의미작용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많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가와 그래픽디자이너는 사진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의 데페이즈망 구조를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의 내러티브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진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각시키고 주관적 의미를 증폭시키는 이미지 표현을 위해 데포르마시옹과 데페이즈망의 미술기법 근거로 하였다. 데포르마시옹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기록과 표현의 심화가 사진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함께 사진이미지에 공존하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창작되는 사진그래픽의 이미지는 전통적 다큐멘터리가 나타내는 객관적 기록의 효과를 넘어 인간의 주관적 무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사진 예술의 새로운 이미지 표현으로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2. 발터 벤야민 저, 발터 벤야민 사진에 대하여, 위즈덤하우스, 2018.
3. 김석진, 삼선쓰레빠 블루스, 눈빛, 2015.
4. 스투어트 프랭클린, 세계, 인간 그리고 다큐멘터리, 토러스북, 2017
5.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구성, 데포르마시옹,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6. 최치권, The Map of Korea, ILU, 2016.
7. 프랑수아 솔라주 저, 신화민, 정재준 옮김,

사진미학, 눈빛, 2019

8. Raymond William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Ed.), NewYork : Oxford UP,

1983.

9. <http://www.google.com>

10. <http://www.naver.com>